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①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는 “도서관교육, 다시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2001년도 동계학술발표회를 1월 11일(금)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제1주제 “초등학교에서의 도서관교육과 과제”를 발표한 유소영 교수는 학교교육의 목표, 창의성의 생산경로와 향상조건, 사고행위를 돕는 보조장치, 초등학교 도서관교육에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의 목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 함양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창의성을 생산하는 경로는 우선 도서실 자료로 다양한 정보를 유입하고 이를 통해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사고의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고행위를 돕는 보조장치로 과제 정의, 과제해결에 도움되는 정보의 출처(소재)를 파악하는 정보탐색전략, 색인 등에서 파악한 정보의 출처, 컴퓨터검색엔진 등을 사용, 자료의 수집을 하는 탐색 및 접근, 유효정보탐색기법, 유효정보를 종합하여 새로운 체제로의 재축조, 결과물과 단계마다의 평가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지적된 단계로 돌아가 수정보완하는 6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초등학교 도서관교육에서의 과제는 도서관 설립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며, 학교도서관의 시설, 자료, 검색도구를 확충해야 하며, 기존 공공도서관에 아동 및 청소년 자료실을 확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서교사를 양성해야하며, 사서교사의 신분을 보장해야하고, 도서실 프로그램 교안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2주제 “중·고등학교에서의 도서관교육과 과제 - 학교도서관 도서관교육의 과제와 시사점”

에서 이덕주 사서교사는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도서관 교육의 사례를 예를 들어 도서관 교육은 도서관의 규모나 인력의 문제가 아니며, 교수법 문제이며, 사서와 연계한 수업을 하도록 해야하며, 자원봉사자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켜 협력자로 만들어 도서관 담당자의 위상을 높이고 도서관이 해당 공동체나 학교에서 자리를 잡아 나가는데 큰 힘으로 작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학교 도서관 담당자들이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에서 여러 기회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배우고 적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제3주제 “대학도서관의 도서관교육과 과제”에 대해 장덕현 교수는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관 교육과 대학도서관교육의 비판적 이해, 도서관 교육의 정치학에 대해 제시하였다.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교육은 단순한 안내책자나 이용안내 팸플렛에서부터 정규과목으로 개설되는 교양 교과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최근 몇 년 동안 각 대학과 대학도서관들이 이용자교육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교육의 구체적 프로그램들을 고안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도서관 이용교육의 대략적인 유형은 정보검색교육, 학술정보이용교육, 도서관이용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가르치는 기능을 보조해 주는 “부속기관”일 뿐 그 스스로가 가르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육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주요 도구가 되며, 도서관교육은 대학에서의 학습과정에서 필수적인 또 하나의 교육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서관교육은 일면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활동이며, 도서관 이용을 매개로 하지 않는 도서관교육은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도서관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으로 인식되려면 단순히 도서관이용법이나 데이터베이스이용법 등을 탈피하여 정보의 내용에 접근하고 이용자의 이용형태에 개입하는 정보의사로서의 사서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4주제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관교육과 과제 - 과천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에서 김지봉 정보봉사과장은 도서관교육의 필요성과 방법, 도서관교육의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점차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생을 통하여 자기학습을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도서관 이용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도서관 이용교육은 도서관에 대한 교육, 도서관 자료에 대한 교육, 학습기술에 대한 교육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시청각자료에 의한 도서관 이용자 교육, 인쇄물자료, 도서관견학을 통한 이용자 교육, 개별지도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공공도서관에 있어 도서관교육의 과제는 우선 학생들에게 독서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면서 동시에 공공도서관의 자료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도서관 교육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이 제기된다고 하면서, 첫째, 독서환경 여건 개선, 둘째, 체계적인 도서관교육 모델 개발을 들었다. 독서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료실확충과 사서직원 충원, 장서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체계적인 도서관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업과정의 하나로 도서관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학교에서 체험한

도서관교육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공공도서관에서 한 차원 높은 도서관 자료 활용을 통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한 단계 높은 도서관 자료의 평가방법, 정리방법 혹은 수준 높은 도서관연수를 공공도서관에서 분담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제5주제는 “사회교육기관에서의 도서관교육과 과제”에서 송영숙 교수는 독서교육의 기본은 독서체험이라고 하면서 언어체험과, 자연체험을 설명하였다. 언어체험에서는 이야기가 가장 확실한 독서체험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듣는 동안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듣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상상력을 기를 수 있으며, 자연체험에 대해서는 독서캠핑을 예로 들면서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독서캠핑 같은 자연체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송교수는 사회교육기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의 독서교육지도자 전문교육과정,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어린이문고, 가정문고, 아동관, 서점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서운동은 도서관운동으로 통한다”는 말로,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사회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독서교육은 도서관 교육과 가장 깊은 관련을 갖는 다면서 이러한 모든 독서교육활동을 사회적, 국가적인 독서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독서운동은 또다시 도서관운동, 도서관교육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충분한 수의 발전된 도서관을 가진 이상적인 사회구현을 위하여 단단히 터를 닦아야 할 것이며, 터를 닦기 위한 방법은 바로 아이들에게 진정한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며, 교육방법으로써의 독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강연을 끝마쳤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②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제4차 정책토론회

2002년 2월 6일(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제4차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중 제2주제로 21세기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동열 위원(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과제는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의 기반 인프라 구축, 대학의 학술·연구 부문의 정보화 확대, 그리고 평생교육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귀결된다면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생산·저장·유통·활용 능력은 인간 지적자산의 보고인 도서관을 통해서 배양될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지원 교육정보센터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핵심 기반 인프라 역할 제고와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의 기본 여건 미흡, 학습자료 장서(정보자료)의 부족 및 활용 저조, 학교도서관 운영전문가(사서교사)의 확보 미흡, 도서관 운영 예산 절대적 부족,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미비를 들었다. 정책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기본 역할 재정립을 통한 ICT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멀티미디어형 학교도서관 설치를 연차적·단계별로 추진하며 전담사서교사 확보로 운영 내실화 통합형 학교도서관 시스템 확충 및 연계에 대해서는, 학습별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학교 및 지역 구성원과의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도서관은 통합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교

육·연구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고등인력 양성과 신기술 개발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지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도서관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연계 구축 미흡, 대학생산 학술정보 디지털화가 단위기관 중심 추진으로 협력 미흡, 학술정보 공유를 위한 대학도서관 지원 체제 미흡을 들었다. 정책방향 및 과제에 대해서는 '대학도서관협력망(The University Library Network)' 구축을 통한 정보이용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식정보의 자원 공유 및 인터넷 접근 환경 구축, 분담 수서 및 상호대차 제도 실시, 대학 간행물의 전자출판제도 도입 등의 시행을 제시하였다. 정부 차원의 행·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해외 학술정보 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부처의 전담 부서 및 전문직 관리자 확보를 강구해야하며, 학술정보 유통기관의 기능 및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정보화의 주역으로 역할을 강화해야하며, 정보·교육·문화·평생학습센터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공공도서관의 부족, 장서량 부족으로 본질적 역할 미흡,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직원 및 예산의 부족,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정보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계 구축이 미흡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정책방향 및 과제는 지역정보화의 기지로 공공도서관 지원 확대를 위해 도서관 실물자료 즉 멀티미디어 자료 및 콘텐츠를 확충하고 정보화사업을 위한 전문사서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시켜야하며, 지역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지원을 강화해야하며, 도서관 건립 및 기부문화에 대한 의식 확산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하며, 국가 디지털정보 공급센터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켜야 하며,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및 협력망을 강화해야한다고 하였다. 서지정보 및 유통정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국립·공공·대학·전문·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출판 및 서점계의 유통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정보공유를 통한 서지정보 및 유통정보의 표준화·신속화를 실현해야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 정보인프라로 각급 도서관이 현재 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도서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제반 여건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도서관 관련 정부 부처간의 연계 부족과 정보화에 대한 통합관리체제가 결여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범부처적인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도서관 정보인프라 기반의 지속적 확충 및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분산되어 있는 정보자료의 디지털화 및 통합화를 통한 검색능력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도서관 정보화 관련된 법과 제도의 낙후성을 면해야 한다. 넷째, 도서관 정보화 관련 행·재정지원 체제가 미흡하므로 국가 정보화 사업의 중복·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학습·교육·연구·평생교육에 관한 개별 도서관 정보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학교도서관 관련 분야에 토론자로 나선 한상완 교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교육인적지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의 6개 부처의 관계 국장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인적지원부 내 학교도서관지원과 설치를 주장하였다. 대학도서관에 대해서 백항기 사서는 대학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협력망 구축을 위한 단위 도서관의 역할 모색, 도서관행정의 전문화 추진, 지식경영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 구현, 사서의 전문성 제고방안 확립, 사서 자격제도의 보완을 덧붙였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이용남 교수는 학교도서관의 발전해야 다른 관종의 도서관들도 제구실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도서관 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부처간의 협력과 도서관정책자문기구를 부활시키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식정보접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도서관 사업은 민간부문의 사업이 아닌 공공부문으로 관리·운영되는 원칙이 확고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1998년부터 일부 도서관이 간판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사서직을 임명해야 할 도서관장직을 행정직이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현재의 도서관을 잘 지켜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③ ; 국회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국회도서관은 “21세기 국회도서관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2월 20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제1주제 중 첫 번째, “의회도서관의 기능, 역할과 발전 전략 및 향후 동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마가레타 브룬딘(Margareta Brundin : 스웨덴 의회도서관장,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의회분과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도서관은 민주적 절차를 위한 자원으로, 이용자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였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역할은 여러 가지인데, 사서, 조사연구원, 도서관보조원, 기록보관자, 사학자, 기술자 등이 존재한다면 현재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요구 사항으로는 교수법적 경험과 조사연구 서비스라고 지적하였다. 조사연구서비스부는 뉴스서비스, 연설문 작성 등을 제공하며 의원의 개인적인 의안 및 정책 수단의 준비 등에 관한 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 법률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적인 이익과 관련된 업무는 맡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조사연구원은, 위원회의 업무가 과도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기도 하며, 위원회로부터 의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도록 위임받기도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회도서관은 정보화 시대의 흥미로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개발에 대한 일부 방향으로 가상도서관, 소장 도서의 디지털화, 이용자와 밀접한 발전, 조사연구 서비스 및 기타 전문 기능의 개발, 프로젝트 형태의 업무, 맞춤서비스, 이용자의 이동성, 인공

지능 및 전문가 시스템, 전자저장 및 문서보관, XML, 국제화 및 협력, 전자 민주주의 등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제1주제 중 두 번째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지원 체계의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정호영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도서관은 입법정보의 지원조직으로 법제담당 조직, 예산분석기구, 참고회답 담당조직 등이라고 하면서 의회도서관의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은 우선 입법정보지원기능이라고 하였다. 입법정보지원과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고회답과 입법관련지식DB 구축을 업무의 두 축으로 하여 의원들에 대한 입법정보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회답의 경우는 남북관계의 개선 등이 큰 관심과 쟁점이 되었던 통일외교분야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일찍부터 관심이 높아진 정치분야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담당자가 공백인 상태이다가 신규채용에 의해 자리가 채워진 분야인 법제사법, 재정경제, 교육, 보건복지 분야 등에서는 연구관 신규채용 이후 참고질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수 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입법정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참고회답의 건수가 적은 점,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한 취약점으로 담당 연구관이 없는 공백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조직의 안정화, 서비스의 질적 제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주제 전문 사서의 육성, 의회 내 다른 입법정보지원 조직들과의 긴밀한 연계와 역할 분담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안 실현을 위해 의회지도부의 지지와 신임, 국회도서관의 역할모델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2주제 중 첫 번째, “전자도서관은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하루야마 메테츠(春山 明哲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조사및입법고사국 차장)는 먼저 국회의회의록의 Full-Text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일반국민이 국회의 모든 회의록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의회 회의록의 다양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들이 회의록을 자유롭게 인쇄, 다운로드 및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전자정보서비스와 관련한 향후 과제로는 의원들의 조사작업 지원과 각 의원의 필요와 관심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전자국회도서관이 민주주의의 수단이 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의회를 이어주는 쌍방향 채널로서의 역할을 소화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화가 국회 민주주의에 대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과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치 또는 정보, 도서관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 조사는 국회와 국회도서관이 겪고 있는 변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국회, 훌륭한 의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에 대한 고려를 하여 국회도서관 또는 조사연구 기구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제2주제 중 두 번째, “디지털도서관 구성요소와 연계성의 조명을 통한 발전 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맹성현 충남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디지털도서관의 구성요소로 디지털정보를 담고 처리할 하드웨어, 디지털자료 자체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인 요소만 갖추면 디지털도서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를 막고, 디지털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접목을 통한 창의적인 서비스는 디지털도서관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나, 이러한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도서관은 입법지원이라는 고유 임무와 국가정보센터로서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영향력이 큰 기관이므로 대학이나 연구소 혹은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접목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도서관의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타 디지털도서관이 채택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주제 “국회도서관의 국가도서관으로서의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완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국회도서관은 입법도서관으로서 입법에 관한 망라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조사제공을 해야 하며, 정치·경제와 관련된 사회과학분야의 장서와 주제전문사서의 확보 등은 국내 어느 도서관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디지털정보의 효율적 축적과 유통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입법정보지원센터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국가기관 및 국회의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기존 국회도서관 건물의 서고 소장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자료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전자도서관 겸 보존서고동의 건립은 국회도서관의 당면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